

루소의 『고백록』에 나타난 역사와 소설의 관계 : 뇌샤텔 원고의 서문을 중심으로¹⁾

이 봉 지
배재대학교

루소의 『고백록』은 자서전이다. 따라서 그것은 현실에 지시 대상을 갖는 넌픽션이며 18 세기 프랑스의 경우, 이러한 넌픽션은 역사의 영역에 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평가들은 계속하여 『고백록』의 소설적 측면에 주목해왔다. 예를 들어 필립 르쥔느는 『자서전의 규약』에서 ‘부모들의 소설’, ‘사촌들의 소설’과 같은 소설적 토포스가 나타남을 밝혔고²⁾ 장 루이 르세르클은 『루소와 소설의 기술』에서 『고백록』의 피카레스크 소설적 측면 및 세부 묘사에서의 소설과의 유사성 등에 주목하였다.³⁾ 또한 그의 자아인식적 측면에서도 소설적 상상력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루소 자신도 『고백록』 이후에 쓰여진 『고독한 산책자의몽상』에서 이에 관해 언급하면서 “보다 주의 깊게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나는 내가 진실이라고 말했던 것 중에 많은 지어낸 것이 있음을 알고 매우 놀랐다”⁴⁾고 고백하였다. 이 때문에 앤 히틀은 『고백록』에 나타난 루소를 실제의 그 자신이기보다는 하나의 “상상적 존재”라고 주장하면서 루소의 『고백록』이 하나의 “거의 소설 quasi-roman”이라고 규정하였다⁵⁾. 이외에도 이용철, 마르크 에젤댕제, 마르셀 레몽, 니콜라 보노트등 많은 연구자들이 『고백록』의 소설적 측면을 지적하였다.⁶⁾

그러나 이들은 결코 루소가 『고백록』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한 글쓰기의 이론과 18 세기 소설

-
- 1) 이 논문은 1997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2) Lejeune, Philippe. *Le pacte autobiographique* (1975), 한국어 번역판, 『자서전의 규약』, 윤진 역, 문학과 지성사, 1998, 180쪽.
 - 3) Lecerle, J-L. *Rousseau et l'art du roman*, Paris, A. Colin, 1969, pp. 386-398.
 - 4) Rousseau, J-J. *Oeuvres Complètes I*, Paris, Gallimard, 1959, p. 1025.
 - 5) Hartle, Ann. *The Modern Self in Rousseau's Confessions: A Reply to St. Augustine*, Notre Dame,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3, pp. 21-23.
 - 6) 이용철. 「루소의 글쓰기에 나타난 상상적 자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4; Eigeldinger, Marc. *Jean-Jacques Rousseau et la réalité de l'imagination*, Neuchâtel, La Baconnière, 1962; Raymond, Marcel. *Jean-Jacques Rousseau, la quête de soi et la rêverie*, Paris, José Corti, 1962; Bonhôte, Nicolas. *Jean-Jacques Rousseau, vision de l'histoire et autobiographie: étude de sociologie de la littérature*, Lausanne, L'Age d'homme, 1992, pp. 148-149.

미학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다. 이것은 어쩌면 이러한 루소의 논의가 대부분 1764년에 씌여진 뇌샤텔 원고의 서문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기인하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이 서문은 1782년 쥬네브에서 출판된 『고백록』의 제 1판에 포함되지 않았고 따라서 『고백록』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원고는 루소가 스위스에 체제하던 시절에 씌여진 것으로 같은 공책에 기록되어 있던 『고백록』의 첫부분을 중도에서 포기할 때 함께 사장되고 말았다. 그리고 쥬네브 판에서 그것은 훨씬 짧은 현재의 서문으로 대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문의 이론적 가치는 감소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 엘로이즈』의 제 2 서문, 즉 「소설에 대한 대담」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글쓰기에 대한 루소의 견해가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루소는 “소설에 대한 대담”이 통상적인 서문의 형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요약한 서문을 새로 썼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쥬네브 판의 서문은 뇌샤텔 원고의 요약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쥬네브판 서문의 앞부분은 『고백록』의 진실성에 관한 뇌샤텔 서문의 논의를 압축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뇌샤텔 서문을 『고백록』의 한 부분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쥬네브 판의 서문과 마찬가지로 『고백록』의 글쓰기에 대한 설명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뇌샤텔 원고의 서문을 중심으로 『고백록』과 소설의 이론적 유사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로 뇌샤텔 원고의 서문에는 18 세기 소설의 서문에 빈번하게 등장하였던 여러 가지 논의가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첫째, 진실성에 대한 강조, 둘째, 작품의 유용성, 셋째, 평민의 글쓰기에 대한 변호이다. 우리는 이 세가지 유사성을 검토함으로써 『고백록』에 대한 소설의 영향의 새로운 측면을 추가하는 동시에 18 세기에 있어서의 소설과 역사의 전통에 대한 『고백록』의 상대적인 위치를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역사적인 저술인 『고백록』에 나타나는 소설적 측면이 곧 루소의 텍스트와 당시의 역사 서술간의 거리를 의미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 거리는 결국 18 세기 소설과 역사에 대한 『고백록』의 특수한 위상을 증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 진실만을, 오로지 진실만을

먼저 진실성의 문제는 역사와 소설을 가장 학연이 구분하는 동시에 또한 이 둘 사이의 혼동의 주원인이 되는 문제이다. 진실에 관한 루소의 집착은 너무도 유명하다. 그는 자연 상태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인간에게도 인간의 존재와 외면의 일치를 요구했다.⁷⁾ 또한 『학문 예술론』 이후, 이러한 원초적 투명성을 되찾기 위해 “진실의 전도사”의 역할을 자임하였다. 이러한 진실

7) Starobinski, Jean. *Jean-Jacques Rousseau: la transparence et l'obstacle*, Paris, Gallimard, 1971, p. 23.

에 대한 루소의 강박관념은 『고백록』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또한 루소가 자신의 글쓰기를 다른 모든 글들과 차별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고백록』에서 가장 눈에 띠는 특징은 자기 글쓰기의 독특성에 대한 루소의 인식이다. 이 글의 쥬네브 판 서문에서 루소는 자신의 글쓰기가 “자연에 따라, 그리고 전체적 진실성 속에서 그린 단 하나의 인물묘사”로서 “그 이전에도 존재한 적이 없고 그 이후에도 존재하기 어려운” 특수한 것임을 강변한다. 또한 제 1권의 서두에서도 자신의 기도가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모방하지 못할 것”⁸⁾이라고 함으로써 이러한 독특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은 『고백록』 곳곳에서 되풀이된다. 루소에 따르면 그의 기도가 이처럼 유례가 없으며 그리고 과거에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쓰여지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전면적 진실성에서 있다. 왜냐하면 그가 하고자 보여주고자하는 진실은 신이 파악하는 것과 같은 완전한 투명성이기 때문이다.

『고백록』의 서문에서 루소는 이러한 자신의 기도와 그 이전의 자서전들 사이의 차이점을 검토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루소는 이제 인간적인 척도를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즉, 그가 목표로 하는 진실이란 최후의 심판의 시간에 “영원한 존재”가 보는 것과 완전한 진실이기 때문에 다른 인간이 써놓은 비망록이나 전기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뇌샤텔의 서문의 경우, 루소는 이를 저작들과의 관련하에서 자신의 글쓰기를 설명한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나타난 루소의 논의를 통해 역사와 소설에 대한 『고백록』의 상대적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루소의 첫 번째 검토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장르 상에서 『고백록』과 가장 가까운 전기적 저작들이다.

역사, 전기, 인물묘사, 인물론! 이것들은 다 무엇인가? 몇몇 외부적 행위, 또한 그것과 연관되는 몇몇 이야기, 그리고 미묘한 추측 위에 세워진 교묘한 소설이 아니던가? 진실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는데 급급한 작가에 의해 꾸며지는 그런 소설 말이다.⁹⁾

그리므로 이러한 저작들은 진정한 의미의 역사서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적 진실이라는 겉껍질을 씌웠을 뿐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의 광경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루소가 당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역사와 소설의 혼동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17 세기 말에서 18 세기 초에 이르는 약 반세기간은 역사와 소설의 혼동이 극심했던 시기이다. 17 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소설과 역사는 뚜렷이 구분되어 있었다. 따라서 소설이 아

8) Rousseau, Jean-Jacques. *Les Confessions*, Paris, Garnier-Flammarion, p. 44. 우리는 『고백록』의 텍스트로는 이 판을 썼으며 뇌샤텔 서문의 텍스트로는 Gallimard 출판사의 *Oeuvres Complètes*를 썼음을 밝혀둔다.

9) Rousseau, O.C., I, 1959, p. 1149.

무리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더라도 그것은 결코 역사로 간주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들끼리의 혼동의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1620년경 이후, 대귀족들의 비망록이 출간되기 시작하고 이러한 진짜 비망록의 유행에 힘입어 가짜 비망록들이 쏟아져 나옴에 따라 그것이 진정한 비망록인지, 아니면 대귀족의 이름을 빌어서 교묘히 꾸며낸 가짜 비망록인지의 구별이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피에르 벨은 이러한 가짜 비망록을 “픽션과 진실의 혼합물, 반은 소설, 반은 역사”라고 규정하고 “사람들이 역사상의 유명한 귀족들의 감춰진 사랑, 감춰진 이야기 등을 제멋대로 출판하는 바람에 이러한 혼란은 나날이 심해진다”고 개탄하였다.¹⁰⁾

벨의 지적에서 보듯이 가짜 비망록은 진정한 의미의 소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의 이름을 사용하고 또한 그들의 행적을 기초로 하여 쓰여졌다. 또한 그 주인공은 그 당시 사회에서 매우 유명한 인물들이었다. 이처럼 가짜 비망록의 경우, 허구는 역사라는 골격 속에 교묘히 삽입되어 있었고 따라서 이 둘 사이의 경계는 상당히 모호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있어 소설과 역사의 혼동은 역사의 신뢰성에 커다란 도전을 제기하였다. 실제로 30 여편의 가짜 비망록을 남겨 이 분야의 대표적 인물로 간주되는 쿠르틸 드 상드라의 경우, 이러한 합성이 매우 교묘하였다. 따라서 그의 작품 중의 몇몇은 오랫동안 진짜로 간주되기도 하였다.¹¹⁾

이 때문에 볼테르는 1751년에 출판된 『루이 14세의 세기』에서 그의 가짜 비망록이 역사에 끼치는 폐해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우리는 프랑스인들과, 특히 외국인들에게 네덜란드에서 인쇄된 비망록에 대한 경계심을 고취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여기에 넣는다. 쿠르틸은 이러한 종류의 작가들 중에서 가장 심한 경우이다. 그는 유럽을 역사라는 이름을 가진 픽션들로 뒤덮었다. 샹파뉴 연대의 장교가 출판업자에게 거짓말을 팔러 네덜란드에 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¹²⁾

이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비망록 장르는 18 세기에 들어서도 생 시몽의 비망록을 비롯한 많은 저작들을 산출하는 등 여전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따라서 18세기 프랑스에 있어서 자서전의 일반적인 제목은 비망록mémoires이었다. 비망록은 엄격하게 말해서 역사서가 아니다. 그것은 분명히 18 세기 프랑스인들이 ‘역사서’라고 이름 붙인 저작들과 구별된다. 마르크 푸마롤리에 따르면 이 차이는 역사 서술이 객관적이고 포괄적인데 반해 비망록의 서술은 주관적이며 또한 사건에 참가한 개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국한된다는데서 비롯된다.¹³⁾ 즉 비망록은 “미래의 법

10) Bayle, Pierre. *Dictionnaire historique et critique*, Rotterdam, Reinier Leers, 1697, t. 2, 1^e partie, "Nidhard," p. 666, note c.

11) Lombard, Jean. *Courtiz de Sandras et la crise du roman à la fin du XVII^e siècle*, Paris, PUF, 1980.

12) Voltaire. *Le Siècle de Louis XIV*, Paris, Garnier-Flammarion, 1966, t. 2, p. 213.

13) Fumaroli, Marc. "Les Mémoires du XVII^e siècle au carrefour des genres en proses", *XVII^e Siècle*, no 94-95 (1971), pp. 10-16.

정에 제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파일”로서 자료적 가치만을 가졌으며 따라서 역사적 사건들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역사서와 같으나 그 사건들에 대한 접근 방법은 전혀 달랐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 18 세기 프랑스에서 역사를 대표하는 것은 비망록이었다. 왜냐하면 18 세기에는 이와 같은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역사서가 산출되지 못했으며 이 까닭에 이 시기에 있어 “아리스토텔레스의 미학적 구분의 양대 축인 진실의 축과 있음직한 것과 기괴한 것의 축 중에서 시가 뒤의 축을 대표한다면 진실의 축을 대표하는 것은 비망록이었다.”¹⁴⁾

실제로 루소 자신도 처음에는 자신의 자서전을 『고백록』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며 『고백록』이라는 제목이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비망록’이라는 명칭을 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1769년 4월 27일 출판업자 레에게 보낸 편지에서 루소는 “당신이 내 생애에 대한 비망록을 쓰라고 제의했을 때 나는 그것 때문에 초래될 재난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했습니다”¹⁵⁾라고 쓰고 있다. 또한 완성된 『고백록』 속에서도 루소는 때때로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¹⁶⁾ 그러므로 루소가 자신의 자서전을 비망록이라 부르지 않고 『고백록』이라 부른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자서전을 소설과 혼동되는 이러한 역사 서술과 구별하고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⁷⁾

그러나 이처럼 소설에 대해 경계하는 태도, 즉 진실에 대한 루소의 강박적인 태도는 다분히 소설적인 데가 있다. 왜냐하면 진실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해 거짓의 징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진실을 강조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것의 진실성이 의심받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역사는 예로부터 진실과 동의어로 쓰였다. 그러므로 역사에 있어 진실의 문제는 자명한 것으로 대부분의 역사서의 경우, 이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17 세기에 쓰여진 라파예트 부인의 『영국 공주 앙리에트의 이야기』의 서문에는 진실의 문제가 전혀 제기되지 않는다. 다만 서문의 마지막에 특정 정보를 자신이 어떻게 알았는가의 문제만 간단히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공주님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나는 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또 할 마음도 없다. 나는 단지 내가 직접 지켜본 공주님의 죽음의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다.¹⁸⁾

14) ibid., p. 10.

15) Rousseau. O.C., Introduction, xxviii에서 재인용.

16) 예를 들어 *Les Confessions*, livre 10, p. 279.

17) 『고백록』이란 제목의 자세한 의미에 대해서는 Ann Hartle, op. cit. p.11; Bonhôte, op. cit. p147-148; Lionel Gossman, "The Innocent Art of Confession and Reverie", *Daedalus*, vol. 107. no. 3 (summer, 1978) pp. 60-61등 참조

18) Madame de La Fayette. *Histoire de Madame Henriette d'Angleterre*, (1665년과 1669년에 두 시기에 나누어 저술됨) Paris, Mercure de France, 1988, p. 22.

그녀는 영국 공주 앙리에트의 죽음의 현장에 있었다. 그러므로 그녀는 그것에 대해 가장 잘 말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그러나 그녀는 이 특정 사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실에 대해서는 그 근원을 밝히지 않는다. 어쩌면 그것은 불필요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17 세기 사회에서 이 름이 잘 알려진 귀족이자 문필가인 까닭에 표지에 인쇄된 그녀의 이름만으로도 진실에 대한 보증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비망록의 경우, 때때로 자신이 쓰는 이야기의 진실에 대한 보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6 세기에 쓰여진 블레즈 드 몽뤽의 『코망테르』의 서문에는 신과 죽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실의 증인이 되기를 청하는 구절이 나온다.¹⁹⁾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일 뿐 레츠 초기경, 생 시몽등 17, 18 세기의 대표적인 비망록 작가들의 경우에는 진실의 보증에 대한 고려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므로 진실에 대한 루소의 강박적인 강조는 역사의 전통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물론 역사는 진실을 그 본령으로 한다. 그러나 역사는 그것에 대해 드러내어 강조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명한 것인 까닭이다.

그러나 소설의 경우는 다르다. 소설은 원칙적으로 허구이다. 따라서 소설적 진실은 결코 역사적 진실과 같은 것일 수 없다. 그러나 18 세기의 독자들은 비비언 밀론의 지적대로 허구적 진실, 즉 “상상적 믿음”과 담론과 현실의 일치를 믿는 “문자적 믿음”을 구분하지 않았다.²⁰⁾ 그러므로 그들은 소설이 허구를 다룬다는 점을 들어 이를 거짓이라고 비난하였다. 새로운 문학 장르인 까닭에 문학계에서의 지위가 확고하지 않던 소설 장르는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소설적 진실이란 미학을 내세울만한 입장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소설은 스스로를 역사적 진실로 위장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이러한 고육지책은 18 세기 전반에 비망록 소설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정한’ 비망록의 경우, 책 표지의 저자명만으로도 역사적 진실이 입증되었던 반면, 비망록 소설의 경우에는 이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 즉 허구에 불과한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이 불가능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18 세기의 소설가들은 여러 가지 교묘한 전략을 짜내었다. 이러한 전략중 가장 간단하고도 대표적인 것이 서술된 내용의 진실성을 서문등에서 거듭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진실성의 주장에는 마리보의 『출세한 농부』의 경우처럼 간단히 언급되고 마는 경우도 있다. 이 비망록 소설의 화자인 자콥은 서문에서 “이것은 마음대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앞으로 독자들은 이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²¹⁾라는 한 마디 말로 끝내버린다. 그러나 때로 그것은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기도 한다.

19) Blaise de Monluc, *Commentaires*, 1521-1576, ed. Paul Courteault, Paris, Gallimard, 1964. Préambule à Monseigneur, p. 78; Fumaroli, op. cit. p. 15에서 재인용.

20) Mylne, Vivienne G. *The Eighteenth Century French Novel: Techniques of Illusion*, 2nd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p. 10.

21) Marivaux. *Le Paysan parvenu*, Paris, Garnier-Flammarion, p. 26. (초판, 1734)

예를 들어 그랑부아네 드 베리에르의 『*** 씨의 비망록』의 주인공은 프랑스의 비망록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허구적 요소를 비판하며 이것을 프랑스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것에 반하여 그는 자신이 이탈리아 사람임을 기화로 이탈리아인의 솔직성을 진실에 대한 보증으로 내세운다.

나는 그런 전래허구를 진실로 가장하는 전래을 쓰지 않겠다. 나는 문학에 책략을 쓰지 않는 나라 출신이다. 그러니 내가 프랑스에 와 있다고해서 나의 솔직성을 벼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²²⁾

무이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이가 비망록의 내용 자체를 진실에 대한 보증으로 내세운다. 그는 『안 마리 드 모라의 비망록』에서 화자인 안 마리 드 모라의 입을 통해 진실에 충실하기 위해서 부끄러운 사실까지 고백해야하는 비망록 화자의 의무에 대해 이야기 한다.

이런 세세한 사실을 늘어놓는 것은 자존심에 상처를 준다. 나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다. 나의 자존심은 내 팬을 좌지우지하려한다. 쓸데없는 수치심도 이에 합세한다. 그러나 이런 유혹을 뿌리쳐야한다. 진실에 구원을 청해야한다. 진실이 나를 인도하도록, 그리고 소박한 성실성에 의거한 것이 아니면 어떤 것도 쓰지 않도록 해야한다.²³⁾

이처럼 부끄럽고 곤란한 것조차도 숨기지 않는다면 그녀가 쓴 글은 결코 거짓일 수 없다. 자존심을 상해가면서까지 진실에 충실하려는 그녀의 태도는 그녀의 성실성에 대한 증거가 되며 그녀의 글쓰기의 진실성에 대한 보장이 된다. 이러한 태도는 랑베르시에 양에게 엉덩이를 맞은 사건을 서술하는 루소의 태도와 유사하다. 여기서 루소는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보이게하는 부끄러운 고백을 한 후에는 더 이상 거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는 나의 고백의 가장 어둡고 더러운 미로 속에 가장 어려운 첫 발자국을 내딛었다. 말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일은 범죄적인 것이 아니라 우스꽝스럽고 부끄러운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다. 내가 위에서 밝힌 사실을 말한 다음에는 더 이상 거칠 것이 없다.²⁴⁾

루소는 안 마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치부까지도 드리냄으로써 글 전체의 진실성을 보장받으려 한다. 필립 르쥔느는 이처럼 작은 부분을 회생함으로써 전체를 살리는 루소의 전략을 다음과 같

22) Grandvoinet de Verrière. *Mémoires et aventures de Monsieur de ****, traduits de l'italien par lui-même, Paris, Prault père, 1735, préface.

23) Mouhy. *Mémoires d'Anne-Marie de Moras, comtesse de Courbon, écrits par elle-mesme, adressés à Mademoiselle d'Au***, pensionnaire au couvent du Cherche-midi*, La Haye, Pierre de Hondt, 1739, I, pp. 10-11.

24) Rousseau. *Les Confession*, p. 55.

이 평가한다.

무죄를 변호할 때 자신이 양심적으로 성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과오를 고백함으로써 그것이 아주 눈부시게 행동 전체의 순수성을 드러내 보이게끔 하는 것은 괜찮은 전략이다.²⁵⁾

물론 여기서 르죈느가 말하는 작은 과오는 엉덩이 때리기의 경험 이전의 훨씬 사소한 사건인 클로 부인의 일화이다. 그러나 이 두 고백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든 것을 다 말하겠다”는 루소의 야심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에는 좋은 것 뿐만 아니라 “역겹고, 노골적이고, 유치하고, 또 때로는 우스꽝스러운”²⁶⁾ 것들까지도 포함되며 따라서 거짓말은 커녕 은폐조차도 용납되지 않는다. 한 마디로 루소는 생의 모든 것을 자신의 자서전 속에 담아놓겠다는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을 공개하는데 있어서 결코 애매하거나 숨겨진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 나는 항상 독자들의 눈 앞에 드러나 있어야한다. 독자들은 내 마음의 모든 방향과 내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를 볼 수 있어야한다. 그들은 나를 한 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²⁷⁾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말하겠다”는 루소의 주장은 곧 전면적인 성실성에 대한 최상의 보증이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장을 통해 그는 자신의 모든 과오, 모든 결점까지도 다 고백하겠다고 독자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마리는 몇 개의 과오를 고백함으로써 화자로서의 자신의 성실성을 증명하려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말하는 루소의 경우, 그 성실성이야 두말 할 필요도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때 “전면적 진실”을 주장하는 루소의 전략은 결국 ‘상상적 현실’을 ‘역사적 현실’로 믿게하려는 18 세기 소설의 전략을 극단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필립 스튜어트는 루소가 자신의 『고백록』이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루소가 자신의 기도의 독특성을 주장한 이유는 바로 진실성에 있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주장은 이미 18 세기 소설 장르에 일반화된 소설적 관습이기 때문이다. 물론 루소에 의해 서술된 사건들은 소설의 경우와는 달리 현실 속에 그 지시대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적 차이를 무시하고 순수한 표현의 차원만을 고려할 경우, 우리는 그것이 역사보다는 소설의 관습과 더욱 닮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필립 스튜어트가 독특성에 대한 루소의 주장이 “넌피션의 차원에서는 옳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의 개념은 비망록 소설의 전통에

25) Lejeune, Philippe. op. cit. p. 166.

26) Rousseau. O.C., p. 1153.

27) Rousseau. *Les Confessions*, p. 97.

딱 들어맞는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는 그 전통으로부터 그것을 빌려왔는지도 모른다.”²⁸⁾ 고 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2. 사례를 통한 독자의 교육

글쓰기에 대한 루소의 정당화의 논리와 소설의 그것 사이의 두 번째 유사성은 자신의 글쓰기의 유용성에 관한 것이다. 루소는 『고백록』의 서문에서 자신의 자서전을 “유익한 작품”이라고 규정하고 그 이유로서 그것이 “인간에 대한 연구에 있어 첫 번째의 비교 대상의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하나의 사례로 제시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자기이외의 사람에 대한 한 모델의 구실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루소가 목표로 하는 “인간에 대한 연구”는 결코 추상적이거나 사변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차라리 독자 개개인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에 관계되는 것이며 이러한 이해는 타인, 즉 루소의 사례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고백록』의 유용성이란 결국 매우 경험적이고 실용적인 효용이다.

이러한 루소의 견해는 뇌샤텔 원고의 서문에 보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 서문에서 루소의 논의는 인간이란 자기 자신 밖에 알지 못하며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관찰에서부터 시작된다. 루소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의 글쓰기를 통해 이에 공헌하기로 결심한다.²⁹⁾

루소에 의하면 이러한 인간의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독자에게 유용하다. 그 첫째는 타인에 대한 지식의 제공이다. 루소에 의하면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타인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 우리는 앞에서 루소가 당시의 전기적 저술들의 허구성을 비판한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루소에 의하면 자신의 결점을 드러내기를 서슴지 않는 등, 진실한 자화상을 그런 것으로 유명한 몽테뉴조차도 허위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결점을 고백하는 척하면서도 결국 “좋은 결점” 밖에는 드러내지 않으려했던 까닭이다.³⁰⁾ 이들과는 달리 루소는 완전한 진실을 제공함으로써 타인을 자신처럼 알 수 있는 통로를 트고자 한다. 즉, 『고백록』을 통해 독자는 루소라는 한 인간을 전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이로써 타인에 대한 이해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루소의 『고백록』은 하나의 사례 연구이다. 루소는 자신을 연구 대상으로 내놓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타인의 마음을 항상, 그리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마음에 의거하여 판단하는 잘못되고 유일한 법칙에서 벗어나게”³¹⁾ 하려는 것이다.

28) Stewart, Philip. *Imitation and Illusion in the French Memoir-Novel, 1700-1750: The Art of Make-Believ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69, p. 173.

29) J'ai résolu de faire faire à mes lecteurs un pas de plus dans la connaissance des hommes. (Rousseau, O.C. p. 1149)

30) ibid., p. 1150.

31) ibid., p. 1149.

하나의 사례로서 루소의 『고백록』이 갖는 또 하나의 유용성은 그것이 독자의 자기 이해를 도와준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루소가 자신의 사례를 하나의 비교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살펴본 바 있다. 그런데 비교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 이 중 한 쪽은 루소이다. 그렇다면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 루소에 의하면 다른 한 쪽은 독자 자신들이다.

[... 독자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내가 하려는 것은 독자들이 스스로를 알려고 할 때 적어도 하나의 비교 대상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즉 자기 자신과 다른 한 사람을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른 한 사람은 바로 나이다.³²⁾]

루소에 의하면 타인을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도 제대로 알기 어렵다. “왜냐하면 어떻게 한 사람을 다른 것과의 비교없이 자기 자신과의 닫힌 관계만을 통하여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단 말인가?”³³⁾ 그러므로 타인의 존재는 자신의 이해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루소는 독자들이 루소 자신의 사례를 하나의 거울로 삼아 스스로를 비춰보기를 원한다. 즉 그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공개함으로써 타인을 알게하고, 더 나아가 독자의 자기이해를 돋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루소가 공헌하고자하는 인간에 대한 연구는 결코 이론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례 연구로서 독자는 이 사례를 통해 스스로 인간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를 통한 독자의 교육이라는 루소의 개념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18 세기의 소설가들에 의해 빈번히 주장된 것이다.

소설의 유용성에 관한 논의는 18 세기 소설의 서문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중의 하나이다. 실제로 18 세기 소설가들은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지나칠 정도로 서문을 많이 썼고 이 서문에서 장황하게 소설 장르의 도덕적, 풍속적 문제에 대해 변호한다. 이들은 다양한 논리를 사용하여 소설의 유용성을 역설하는데 조르쥬 메에 의하면 이들의 논리중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의 하나가 “구체적인 사례가 갖는 교육적 가치”³⁴⁾에 관한 것이다. 이들 소설가들의 논리에 의하면 소설은 잡언이나 설교보다 도덕적 가치가 더 크다. 즉, “잡언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행동의 규칙이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가 그것을 적용해야한다. 그것은 그 자체로서는 우리의 정신에 어떠한 감각적인 이미지도 제공하기 않는다”.³⁵⁾ 이에 반해 소설은 이러한 원칙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을 사례를 통해 보여주기 때문에 그 도덕적 효용이 더 큰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18 세기 프랑스 소설의 서문에 후렴구처럼 등장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음과 같은 아베 프레보의 『한 신사의 비망록』의 서문이다.

32) *ibid.*, p. 1149.

33) *ibid.*, p. 1148.

34) May, Georges. *Le Dilemme du roman au XVIII^e siècle: étude sur les rapports du roman et de la critique (1715-1761)*, Paris, PUF, 1963, p. 116.

35) Diderot, Denis. "Eloge de Richardson", *Oeuvres esthétiques*, Paris, Garnier, 1968, p. 29.

모든 도덕의 명제들은 모호하고 일반적인 원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풍속이나 행위에 적용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그것을 사례로 만들어 보자. [...] 감정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경험과 사례들 뿐이다. 그런데 경험이라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미덕을 행하는데 지침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례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독자들에게 있어 이 책과 같은 작품은 매우 유용하다.³⁶⁾

이렇게 볼 때 루소라는 한 인간을 보여줌으로써 독자에게 인간, 즉 자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는 루소의 논리는 아베 프레보를 비롯한 18 세기 소설가들의 논리를 차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진실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루소는 단순한 차용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소설가들의 이론으로부터 “사례를 통한 교육”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되 그것을 한 차원 높은 것으로 발전시킨다. 소설가들에게 있어 소설의 유용성은 단순히 도덕과 감정이라는 경험적인 차원에 있다. 그러나 루소의 경우 그것은 인간의 이해라는 보다 일반적인 목표를 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의 목표는 철학적인 데에 있다. 이 때문에 앤 하틀은 『고백록』을 “하나의 철학서”로 보았다.³⁷⁾ 그러나 그 철학은 결코 철학적 사변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례를 통해서, 즉 루소라는 한 인간의 초상화를 통해서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는 “자연에 따른 인간”의 철학이다.

이처럼 소설적 관행은 『고백록』이라는 텍스트의 존재를 정당화하는데 일조한다. 그러나 소설의 영향은 이러한 논리적 유사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 즉 정당화의 필요성 자체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전통적인 장르인 역사의 경우, 텍스트의 유용성은 공인된 것이다. 따라서 역사가들은 왜 자신의 글이 유용한가에 대해 논의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그러므로 루소가 『고백록』의 유용성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이미 소설의 영향을 드러낸다. 왜냐하면 자신의 글쓰기를 정당화하려는 루소의 노력은 그 자체로서 이미 그것이 전통적인 의미의 역사에 속하는 텍스트가 아니며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해야한다는 점에서 소설과 같은 입장에 있음을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3. 평민의 글쓰기

『고백록』의 글쓰기에 관한 루소의 논의와 소설과의 세 번째 공통점 역시 글쓰기의 정당화에 관련된 것으로 평민의 글쓰기의 문제이다. 루소는 뇌샤텔 원고의 서문에서 서민인 자신에게는 독자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가상적 비판을 상정한다.

36) Prévost, Antoine-François. *Histoire du chevalier des Grieux et de Manon Lescaut*, Paris, Garnier, 1965 (초판은 1731), “『한 신사의 비망록』의 저자의 서문”.

37) Hartle, Ann. op. cit., p. 12.

[..] 나는 기난하고 뺑이 떨어지면 내가 일해서 밖에서 그것을 마련할 다른 정직한 방도도 없다.

이 얘기만 듣고서도 이 글을 더 이상 읽지 않으려할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들은 뺑 걱정을 하는 사람도 남이 알 만한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을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내가 평민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에는 독자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하지 말기를. 그것은 내 생의 사건들에 관한한 맞는 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사건들 자체보다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의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주로 글을 쓸 것이다.³⁸⁾

마르크 퓌마롤리에 의하면 17 세기에 있어 비망록이란 “후세라는 법정에 제출하기 위해 마련한 문서이자 왕가와 대귀족 가문 사이의 거래에 대한 정확한 대차대조표”³⁹⁾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서는 대귀족에 의해 직접 써여지거나 그의 지시를 받은 사람에 의해, 혹은 그를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 그의 이름으로 저술되었다.⁴⁰⁾ 그러므로 비망록은 오랫동안 귀족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17 세기 후반에 출판된 『퐁티스의 비망록』의 경우, 그 주인공은 대귀족이 아닌 직업 군인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이 책의 편집자는 서문에서 퐁티스가 56년간 군인으로 재직하는 사이에 갖게된 견문의 유용성을 들어 이 책의 출간을 정당화한다.⁴¹⁾ 게다가 퐁티스는 결코 완전한 평민도 아니었다.

이러한 전통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신분만으로 본다면 완전한 평민인 루소가 자신의 자서전을 집필하는데 대해 변명할 필요를 느끼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는 성 어거스틴처럼 주교도 아니었고 봉테뉴처럼 귀족도 아니었다. 게다가 퐁티스처럼 큰 군사적 사건에 참가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루소의 경우, 그의 신분은 사회적 계급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 즉, 문필가로서 그의 명성은 이미 전 유럽에 퍼져 있었으므로 그의 평민 신분은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퐁티스의 예를 살펴본 바 있다. 특별한 자질이 있을 경우,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비망록을 쓸 수 있다는 선례가 있는 셈이다. 게다가 자질에 관한한 루소의 자격은 퐁티스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실제로 18 세기 프랑스 사회에서 문필가들은 귀족들의 살롱에 출입이 허용되었으며 출신 성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재능에 의해서 매우 받았다. 말하자면 그들은 성직자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독립된 계급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주교라는 그의 사회적 신분보다는 신의 은총이라는 기준에 의해 정당화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38) Rousseau. O.C., p. 1150.

39) Fumaroli, Marc. op. cit., p. 17.

40) 이에 대해서는 또한 Cuénin, Micheline. "Les Faux-Mémoires au XVII^e siècle et leur retour en vogue actuel", *Le Roman historique*, Actes de Marseille réunis par Pierre Ronzeaud, Paris, Biblio 17-15, pp. 72-73도 참조할 것.

41) Pontis, Louis de. *Mémoires*. Paris, G. Desprez, 1676, "Avertissement sur ces mémoires", dans Günter Berger (ed), *Pour et contre le roman: Anthologie du discours théorique sur la fiction narrative en prose du XVII^e siècle*, Paris, Biblio 17, 1996, pp. 159-162.

문필가들의 비망록은 그들의 학문적 명성에 의해 정당화된다.

실제로 다수시는 1677년에 출판된 그의 『이탈리아의 모험』에서 자신의 문학적 자질은 자신에게 귀족과 동등한 신분을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나의 신분으로 말하자면 누구도 나의 귀족의 칭호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두 가지 점에서 귀족이기 때문이다. 그 첫째는 문학인이던 나의 아버지 쪽
으로부터의 문학적 자질이다.[...]⁴²⁾

다수시의 비망록은 진지하기 보다는 골개적인 비망록이며 따라서 그의 이러한 주장도 다분히 학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례는 문학적 명성의 사회적 가치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주장은 50년 후, 살랑그르에 의해 현실로 드러난다.

살랑그르는 1715년 『문학 비망록』에서 “모든 학자들이 그들의 비망록을 남기도록 권유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문학사에 큰 빛을 비추게 될 것”⁴³⁾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출판업자인 레가 루소에게 끈질기게 비망록을 쓸 것을 요구한 것 자체가 이미 루소의 비망록의 존재를 정당화시켜준다.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민 신분에 대한 루소의 언급은 필요이기 보다는 차라리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루소는 결코 자신의 문필가로서의 업적을 정당화의 근거로 내세우지 않는다. 루소는 위에서 인용한 문장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문필가로서 자신의 지위의 특수성이 아니라 인간 보편의 권리를 내세운다. 그에 의하면 자신의 생애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자신의 “영혼의 역사”보다 덜 중요하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그가 문필가로서 겪은 사건들보다는 자연인으로서의 그의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자연인으로서의 영혼이란 그 사람의 신분과는 무관하다.

[...] 영혼의 가치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얼마나 위대하고 고상한가, 그리고 그 사상이 얼마나 생생하고 많은가에 따라 결정된다. [...]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생을 살았다고는 하더라도 만일 내가 왕들보다도 더 많고 더 좋은 생각을 하였다면 내 영혼의 역사는 그들의 영혼의 역사보다 더 흥미있을 것이다.⁴⁴⁾

영혼의 계급은 사회적 신분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평민인 자신의 영혼이 왕들의 영

42) D'Assoucy. *Les Avantures de Monsieur Dassoucy*, Préface, éd. E. Colombey, 1876, (René Démoris, *Le Roman à la première personne: du classicisme aux lumières*, Paris, A. Colin, p. 123에서 재인용).

43) Sallengre, Albert Henri de. *Mémoires de littérature*. 1715, t. I, p. 59 (Démoris, op. cit., p. 184에서 재인용).

44) Rousseau. *O.C.*, p. 1150.

흔 보다 더 흥미있을 수 있다는 주장은 평민과 상스러움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당시의 일반적 견해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장 스타로뱅스키의 지적대로 “제 3 계급의 마니페스토”적 성격을 띤다. 왜냐하면 그는 이를 통하여 “그의 의식과 개인적 인생의 사건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영주나 주교나 총괄장세 청부인이 아니더라도 그에게는 보편적 관심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⁴⁵⁾는 것을 언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학 작품 속에서 평민의 말할 권리를 주장한 사람은 루소가 처음이 아니다. 마리보는 이미 1734년에 『마리안의 일생』의 제 2부 서문에서 이를 주장하면서 계급에 구애되지 않는 인간 영혼의 보편성을 주장한바 있다.

많은 독자들은 어쩌면 마부와 뒤투르 부인과의 말다툼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스럽다고 간주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품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좀 더 깨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즉 자만심으로 말 미암아 생겨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구별에 현혹되지 않는 사람들은 마부 속에 어떤 남자가 들어있는지, 그리고 작은 가게 여주인 속에 어떤 여자가 들어있는지를 알아보기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⁴⁶⁾

마리보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마부와 구멍가게 주인이라는 사회적 신분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보편적 인간이다. 즉 평민인 마부나 상인도 귀족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인간이며 이 점에서 그들도 역시 귀족과 같은 표현의 권리갖는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인간을 규정하는 당시의 일반 여론을 “자만심”的 발로로 봄으로써 이러한 구별의 어리석음을 간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마리보의 변호에도 불구하고 『마리안의 일생』에 묘사된 재봉사 뒤투르 부인과 마부의 말다툼 장면은 격렬한 비난에 직면하였다. 조르쥬 메의 지적대로 18 세기 프랑스인들은 “저급하고 심지어는 부도덕한 매너 및 감정 따위와 평민 계급 사이에 자발적이고 필연적인 상관 관계”가 있다고 상정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고상한 취미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문학 작품 속에 평민이 등장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 때문에 1734년 마리보의 소설이 출간되었을 때 당시의 유명한 비평가인 데퐁텐느는 이러한 소설의 하층만화의 경향에 반대하고 단호한 어조로 이에 대해 경고하였다.

그들[소설가]은 더 이상 주인공으로 높은 신분의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 그들은 부르주아의 풍습에 집착하고 도처에서 주인공을 구한다. 그들은 때때로는 심지어 하층 민화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밀바닥 계층에서도 꺼내온다. 그들은 그 풍습을 아무렇게나 묘사하고 합승마차의 마부와 재봉사와 상점 여점원간에 오고간 그 고상한 애

45) Starobinski, Jean. op. cit. p. 222.

46) Marivaux. *La Vie de Marianne ou les aventures de Madame la comtesse de ****, Paris, Garnier-Flammarion, p. 56 (초판은 1734).

기를 미주알고주알 옮겨놓는다. [...] 이러다가는 곧 형이상학 쪼가리를 긁적거리는 천한 사부아 사람이 소설에 등장할지도 모를 일이다.⁴⁷⁾

이러한 데퐁텐느의 비난에서 루소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그가 실제로 “형이상학 쪼가리를 긁적거리는 천한 사부아 사람”이라는 점이다. 『마리안의 일생』이 야기한 논쟁은 당시 사회에서 매우 유명했던 것이며 또한 루소가 마리보와 상당한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루소 또한 데퐁텐느의 글에 대해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부아 사람에 대한 비난은 사부아 지방에서 짚은 시절을 보낸 루소에게 자신의 경우로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자신의 신분 문제를 들고 나온 루소의 의도는 데퐁텐느의 비난에 대한 간접적인 대답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의 문필가적 명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루소는 문필가로서가 아니라 “형이상학 쪼가리를 긁적거리는 천한 사부아 사람”, 더 나아가 이름없는 평민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루소는 단순히 소설 이론의 논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제 3 계급도 귀족들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인간이라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의 연구에 있어서 제 3 계급의 특권적인 위치를 주장한다.

아니, 그것 이상이다. 경험과 관찰이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다면 나는 이 점에서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다 [...] 왜냐하면 나 자신은 아무런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나는 모든 신분의 사람을 알았기 때문이다.⁴⁸⁾

요컨대 “아무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원하지 않는” 그의 평민의 지위는 인간을 관찰하는데 있어 가장 좋은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처럼 루소는 마리보의 논리를 채택하여 발전시킴으로써 소설 장르에서 벌어지는 논쟁을 연장하고 평민의 말할 권리를 확고히 한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마리보나 아베 프레보처럼 소설가는 사회의 모든 신분 계급에서 등장 인물을 찾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한다는 소극적 요구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는 여기에서도 소설가들의 논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 즉, 루소는 자신의 글쓰기를 통해 스타로뱅스키의 지적대로 “그 때까지 귀족과 신사 계급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인간의 보편적 이미지가 이제 문화를 통하여 신분 상승한” 평민의 손에 넘어갔음을 선언한다.⁴⁹⁾

4. 결론: 역사를 넘어서

47) Desfontaines, abbé. *Observations sur les écrits modernes*, t. III (1735), pp. 229-230 (Georges May, op. cit., pp. 174-175에서 재인용).

48) Rousseau. O.C., p. 1150.

49) Staronbinski, Jean. op. cit., p. 223.

우리는 뇌샤텔 서문의 분석을 통해 『고백록』의 글쓰기에 대한 루소의 설명 방식이 많은 점에서 당시 소설의 자기 옹호 방식을 닮아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루소가 진실성, 유용성, 평민의 글쓰기와 민감한 문제에 있어 역사보다는 소설의 논리를 채택한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루소의 글쓰기의 독특성에 기인한다.

역사는 결코 루소에게 글쓰기의 모델을 제시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루소의 기획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을 결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이오넬 고스만이 지적하였듯이 루소의 『고백록』은 두 가지 점에서 이전의 역사적 서술과 구별된다. 그 첫째는 “전면적인 진실”에 대한 요구이고 두 번째는 “영혼의 역사”, 즉 즉 외부적 사건을 중심으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중심주제로 삼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앞에서 루소가 당시의 자전적 글쓰기들을 “교묘한 소설”이라고 평하한 것을 살펴보았다. 그것들은 허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허구가 아닌 역사도 루소의 모델이 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루소가 쓰려는 역사는 “사건 그 자체의 역사이기 보다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의 내 영혼 상태의 역사”, 즉 외부적 사건을 중심으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중심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조차도 루소의 선례가 되지 못한다.

타키투스에 걸맞을 이런 [루소와 관련된] 사건들의 역사는 내가 서술하여도 상당히 흥미가 있을 것이다. 그것들은 이미 공개적으로 알려졌으며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의 감춰진 원인을 알아보는 것이 문제이다. 내가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볼 수 있었던 것은 당연하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의 역사를 쓰는 것이다.⁵⁰⁾

그러므로 루소가 의도하는 “영혼의 역사”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 첫째는 진실만을 다루는 역사는 점이고, 둘째는 그 다루는 중심 주제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이라는 점이다. 라이오넬 고스만은 이러한 루소의 서술방법을 “역사적인 이해 방법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⁵¹⁾이라고 규정한다. 이것은 실제로 당시까지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루소는 새로운 서술 방법을 창조해야 할 필요에 직면한다. 새로운 내용은 새로운 형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고자하는 것을 위해서는 내 계획만큼이나 새로운 언어를 발명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끊임없이 흔드는 이처럼 다양하고, 모순되고, 때때로 천하고, 또 때때로는 말할 수 없이 고상한 감정들의 거대한 혼란을 살살히 탐색하자면 도대

50) Rousseau. O.C., p. 1151.

51) Gossman, Lionel. "Time and History in Rousseau", *Studies on Voltaire and the Eighteenth Century*, vol. 30 (1964), p. 313.

체 어떤 어조, 어떤 문체를 사용하여야 할 것일까?⁵²⁾

르세르클은 루소에게 이러한 새로운 언어를 제공해주는 것은 바로 소설적 언어라고 본다. 왜냐하면 “전면적 진실”을 찾고자하는 루소의 기획은 소설에 의해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객관적 사실만을 서술했다면 그는 다른 수많은 비망록 작가들처럼 역사가였을 것이다. 만일 그가 감정 분석에 그쳤더라면 그는 몽테뉴 계열의 모랄리스트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역사를 통해 전면적인 진실에 도달하려고 노력하였고 이것이 그를 소설가로 만들었다.⁵³⁾

이러한 상황은 자신의 글쓰기를 정당화하려는 루소의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기존 역사의 이론은 결코 그의 글쓰기를 정당화해줄 수 없다. 왜냐하면 『고백록』은 기존의 역사와 스스로를 구별지음으로써 그 존재 이유를 찾는 까닭에 역사는 오히려 그에게 하나의 반 모델의 역할을 할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루소는 새로운 정당화의 논리를 만들어내어야만 하였다. 우리는 앞에서 소설 장르가 이러한 정당화의 새로운 언어를 제공하였음을 살펴보았다. 물론 루소는 그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그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것을 자신의 목적에 맞도록 변형시키고 발전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루소가 자신의 글쓰기를 인식하는 출발점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고백록』에 있어서 소설의 영향은 이중적이다. 그것은 루소의 삶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원리인 동시에 그 이야기의 존재 이유를 밝히는 논리가 된다. 이것은 또한 루소와 소설의 관계에 있어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한다. 즉, 루소에게 있어 소설은 결코 에젤댕제를 비롯한 많은 비평가들의 주장처럼 소설적 상상력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18 세기라는 사회적 현실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문학 장르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다. 루소는 『고백록』에서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소설적 성향을 아이러니를 섞어 묘사한다. 또한 스스로를 샤를 소렐의 풍자적 소설에 나오는 인물을 따라 “엉뚱한 목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뇌샤텔 서문에서 엄숙한 철학자 루소 역시 자신의 글쓰기를 설명하는데 있어 소설에 의지하고 있음을 본다. 그렇다면 이것은 곧 루소가 개인적 성향의 발로로서 뿐만이 아니라 이론적 돌파구로서 소설의 가치를 인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새로운 언어, 즉 역사를 넘어 “전면적 진실”을 밝혀줄 하나의 미학적 가능성으로서 말이다.

52) Rousseau, O.C., p. 1153.

53) Lecercle, J-L. op. cit., p. 398.

참고문헌

- 이용철. 「루소의 글쓰기에 나타난 상상적 자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4.
- Bayle, Pierre. *Dictionnaire historique et critique*, Rotterdam, Reinier Leers, 1697, t. 2, 1^e partie, "Nidhard".
- Bonhôte, Nicolas. *Jean-Jacques Rousseau, vision de l'histoire et autobiographie: étude de sociologie de la littérature*, Lausanne, L'Age d'homme, 1992.
- Cuénin, Micheline. "Les Faux-Mémoires au XVII^e siècle et leur retour en vogue actuel", *Le Roman historique*, Actes de Marseille réunis par Pierre Ronzeaud, Paris, Biblio 17-15, pp. 71-93.
- Desfontaines, abbé. *Observations sur les écrits modernes*, t. III (1735).
- Diderot, Denis. "Eloge de Richardson", *Oeuvres esthétiques*, Paris, Garnier, 1968.
- Eigeldinger, Marc. *Jean-Jacques Rousseau et la réalité de l'imaginaire*, Neuchâtel, La Baconnière, 1962.
- Fumaroli, Marc. "Les Mémoires du XVII^e siècle au carrefour des genres en proses", *XVII^e Siècle*, no 94-95 (1971), pp. 7-37.
- Gossman, Lionel. "Time and history in Rousseau", *Studies on Voltaire and the Eighteenth Century*, vol. 30 (1964), pp. 311-349.
- _____. "The Innocent Art of Confession and Reverie", *Daedalus*, vol. 107, no. 3 (summer, 1978), pp. 59-77.
- Günter Berger (ed), *Pour et contre le roman: Anthologie du discours théorique sur la fiction narrative en prose du XVII^e siècle*, Paris, Biblio 17, 1996.
- Hartle, Ann. *The Modern Self in Rousseau's Confessions: A Reply to St. Augustine*, Notre Dame,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3.
- La Fayette, Madame de. *Histoire de Madame Henriette d'Angleterre*, Paris, Mercure de France, 1988.
- Lecercle, J-L. *Rousseau et l'art du roman*, Paris, A. Colin, 1969.
- Lejeune, Philippe. *Le pacte autobiographique* (1975), 한국어 번역판, 『자서전의 규약』, 윤진 역, 문학과 지성사, 1998.
- Lombard, Jean. *Courtiz de Sandras et la crise du roman à la fin du XVII^e siècle*, Paris, PUF, 1980.
- Marivaux. *Le Paysan parvenu*, Paris, Garnier-Flammarion, (초판) 1734.
- _____. *La Vie de Marianne ou les aventures de Madame la comtesse de ****, Paris, Garnier-Flammarion, (초판은 1734).

- May, Georges. *Le Dilemme du roman au XVIII^e siècle: étude sur les rapports du roman et de la critique (1715-1761)*, Paris, PUF, 1963.
- Monluc, Blaise de. *Commentaires, 1521-1576*, ed. Paul Courteault, Paris, Gallimard, 1964.
- Mouhy. *Mémoires d'Anne-Marie de Moras, comtesse de Courbon, écrits par elle-même, adressés à Mademoiselle d'Au***, pensionnaire au couvent du Cherche-midi*, La Haye, Pierre de Hondt, 1739, I.
- Mylne, Vivienne G. *The Eighteenth Century French Novel: Techniques of Illusion*, 2nd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Pontis, Louis de. *Mémoires*. Paris, G. Desprez, 1676, "Avertissement sur ces mémoires".
- Prévost, Antoine-François. *Histoire du chevalier des Grieux et de Manon Lescaut*, Paris, Garnier, 1965 (초판은 1731).
- Raymond, Marcel. *Jean-Jacques Rousseau, la quête de soi et la rêverie*, Paris, José Corti, 1962.
- Rousseau, J-J. *Oeuvres Complètes I*, Paris, Gallimard, 1959.

Les Confessions, Paris, Garnier-Flammarion.
- Sallengre, Albert Henri de. *Mémoires de littérature*. 1715, t. I, p. 59.
- Starobinski, Jean. *Jean-Jacques Rousseau: la transparence et l'obstacle*, Paris, Gallimard, 1971.
- Stewart, Philip. *Imitation and Illusion in the French Memoir-Novel, 1700-1750: The Art of Make-Believ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69.
- Verrière, Grandvoinet de. *Mémoires et avantures de Monsieur de ****, traduits de l'italien par lui-même, Paris, Prault père, 1735.
- Voltaire. *Le Siècle de Louis XIV*, Paris, Garnier-Flammarion, 1966, t. 2, p. 213.

Résumé

Le Roman et l'histoire dans *Les Confessions de Rousseau*

Lee Bong-Ji

Par l'examen du Préambule du manuscrit de Neuchâtel, nous avons constaté que, dans la justification de ses écritures, Rousseau a utilisé les raisonnements des romanciers du 18e siècle, à savoir, la prétention à la vérité absolue, la valeur morale des exemples concrets, et la revendication du droit du peuple dans la connaissance de l'homme. Cette ressemblance nous permet de mesurer la distance qui sépare *Les Confessions* des écrits historiques de cette époque et d'affirmer l'influence du roman sur les *Confessions* au niveau théorique et esthétique: l'utilisation de la convention romanesque est inévitable chez Rousseau dans la mesure où dans les écrits historiques du 18e siècle, il y manque des procédés pour montrer l'homme dans toute sa vérité. Le fait que Rousseau emploie des conventions romanesques non seulement dans le texte mais aussi dans la discussion théorique de son écriture nous amène à conclure que Rousseau était conscient de la valeur potentielle du roman pour la peinture de la vérité humaine.